

#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이 유아의 우울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조 은 하(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김 영 주(울산대 교수)

## 1. 들어가면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이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우울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영성지향 유아교육의 실제적인 교수 방법 및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은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은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우울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가?

##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W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40명이다. 본 연구의 도구는 박은희(1996)가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와 Kovacs(1982)가 개발한 우울 척도 27문항을 본 연구자가 유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52문항의 질문지이다. 실험 처치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간의 우울,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12일부터 2012년 4월 6일 까지 12회에 걸쳐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통제 집단은 유치원 기본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이 유치원 기본 교육과정에 따른 활동보다 유아의 자아탄력성 증가에 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도 이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기회를 많이 제공받으며, 개방된 다양한 자료를 경험함으로써 유아의 의식세계를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공동작품을 위해 일사적인 만족이나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고 함께 나누고 도와줌으로써 대인관계, 협력성, 감정통제 등이 증가하여 자아탄력성에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이 유치원 기본 교육과정에 따른 활동보다 유아의 우울성 감소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의 하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결과는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이 또래의 생각이나 느낌을 듣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므로 우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왜곡된 지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 4.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유아 영성의 의미와 영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영성지향 유아교육활동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영성지향 유아교육 활동의 실제적인 예와 방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영성지향 유아교육 연구와 교육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이외에도 영성지향 유아교육의 다른 영역인 생명, 직관, 숭상, 사랑 영역의 교육활동이 개발되기를 바란다.